

## 천둥이의 빛이 스민 푸른 묘역에서

최○○

긴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2년여 만의 방문이었다. 햇살은 포근하게 내려앉았지만, 바람에는 어느새 가을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멀리 서부터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묘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중 하나 일칠사오 묘역의 비석에는 엄마의 큰오빠, 그러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얼굴을 뵈지 못한 외삼촌의 이름이 있었다.

“시간은 흘러도 묘비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구나”

엄마의 목소리엔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났다. 가만히 바람을 맞으며 서 있자니, 마치 외삼촌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듯했다. 나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손을 모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젊은 외삼촌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생각으로 나라를 지키셨을까. 단단한 돌덩이 속에 젊은 생의 이야기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했다. 묘비 앞에 바람이 스치자 그건 마치 외삼촌이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묘역을 돌아본 뒤, 현충원 체험관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날, 그곳에서는 ‘불개 천둥이’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다. 자연스레 자리에 앉아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말았다.

영상은 빛이 사라진 ‘까막나라’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임금님은 어둠 속을 밝히기 위해 불개에게 햇님을 물어오라 명하지만, 뜨거움과 차가움을 견디지 못한 불개는 결국 선녀님으로부터 ‘현충주’라는 빛나는 구슬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그 현충주를 지키는 임무를 받은 꼬마 불개, 천둥이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천둥이는 실수로 구슬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1919년,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이었다.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의 함성이 영상 속에서 터져 나올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손에 태극기를 쥔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있었다. 자신의 자유보다 나라의 자유를 먼저 외치던 그들의 외침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반짝이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그 순간, 외삼촌이 떠올랐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싸웠던 삼촌의 모습이 겹쳐졌다. 외삼촌의 마음속에도 저런 뜨거운 불빛이 있었으려나.

다음 장면은 1950년 6·25전쟁의 참혹한 현장이었다. 총성이 막 울리고, 연기가 자욱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쓰러지고, 어린이들이 울부짖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영상 속 군인 한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다오.”

그 말에 가슴이 꽉 막혀왔다. 가슴이 뜨겁게 떨렸다. 엄마의 눈시울도 살짝 붉어졌다. 그 목소리 속에서 외삼촌의 숨결이 느껴졌다.

‘외삼촌도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셨겠죠?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나요?’

그렇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천둥이는 불길 속으로 몸을 던진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사람도 구하고, 현충주도 되살려낸다. 그 순간 선녀님은 말했다.

“지금의 네 마음이면 돼. 이웃을 자기처럼 아끼는 그 마음이 바로 나라 사랑이란다.”

그 말이 천천히 나의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라 사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용기를 내는 작고 따뜻한 마음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 진짜 나라 사랑이라는 걸 천둥이와 외삼촌이 함께 알려준 것 같았다.

영상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더 유난히 맑았고 태극기는 더 자랑스럽게 펄럭였다. 그리고 불개 천둥이의 빛이 곳곳에 스민 듯이 묘역은 더 푸르게 보였다.

햇살은 조용히 묘비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외삼촌이 조용히 미소 짓는 듯했다.

‘외삼촌, 오늘 천둥이 영상을 봤어요. 나라를 지키는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약속을 했다. 외삼촌이 지키신 대한민국, 이제는 제가 그 마음으로 지켜가겠다고.

‘불개 천둥이’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다. 그건 희생, 헌신,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한 시간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너무나 단순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다.

## 현충원을 다녀와서

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2025년 나에겐 이 말이 딱 맞는 해이다.

몇 년 전, 우연히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을 하는 친구 오빠를 보면서 나도 5학년이 되면 꼭 통일부 기자단에 도전해야겠다는 꿈이 있었다.

막연히 우리나라를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이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2025년 올해, 드디어 나는 통일부 어린이 기자가 되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막연히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던 통일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된 것이다.

통일부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전쟁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쟁과 통일, 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이번 9월 달에도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였다.

나도 이미 현충원을 티비에서 보아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이 대략 어떻게 생긴 곳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마다 가는 곳이구나.....’ ‘묘비가 많구나.....’ 아무 생각 없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정해진 순서처럼, 가장 먼저 찾는 장소로 생각했다.

아니면 6.25와 관련된 가족들, 가족 중에 나라를 위해 순국한 분들이 있어야 가는 장소라 나는 그곳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였다.

역시 티비에서 본 것 처럼 현충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끝없이 이어진 묘역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티비에서 보던 것과 달리, 실제 본 그 광경은 숙연함을 넘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모래알처럼 많은 묘비들이 말없이 전하는 희생의 무게 앞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다.

‘ ‘할 말을 잃었다’ 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구나.’ 처음 느꼈다.

그곳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였다.

우리 학교 운동장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 끝없이 펼쳐진 묘비들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진짜 실감이 났다.

숭고한 희생들 앞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깨달았다.

해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겼다.

8살 아이가 친구를 구하다 죽은 이야기,

블랙 이글스 공연 중, 비행기의 결함으로 탈출해야 하지만, 비행기가 떨어질 장소가 어린아이들이 많아 탈출 하지 않고, 비행기를 쪽 몰고 가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복싱 선수도 묻혀있다는 이야기.

전쟁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만 묻혀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책에서 배우던 종이 한 장의 역사와 달리, 그날 내가 본 현충원의 풍경은 한 장의 사진처럼 깊이 남았다.

티비에서 볼 때는 그냥 묘비였지만, 내가 직접 본 그날의 현충원은 그냥 묘비가 아니었다.

요즘의 우리세대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귀찮아하는 경향이 많다. 그렇지만 여기에 묻히신 분들은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타인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다.

이렇게 귀하게 지킨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내가 티비로 안다고 착각했던 현충원은 직접 가보니 내가 알던 그 장소가 아니었다.

많은 박물관과 통일, 역사 관련 유적지들을 가 보았지만,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큰 감동을 주긴 처음이었다.

현충원에 참배하러 방문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현충원이 좀 더 국민들에게 편안한 장소였음 좋겠다. 왜냐하면 현충원에 오면, 자살 할 마음이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국가라고 한다.

특히나 요즘은 더욱 나와 같은 십대들의 자살률, 우울증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보았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

현충원에 오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고, 빛나는 하루인지, 구구절절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주 자주 와서 공원을 거닐기만 해도 마음이 힐링 되지 않을까.  
수많은 묘비들을 바라보면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기지 않을까.

현충원이 가진 깊은 의미도 지켜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편한 장소도 될 순 없을까?

나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꿈이 있어도 전쟁이 나면 공부할 기회와 미래를 잃게 된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과 이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 죽은 군인들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되고 남북이, 세계 모든 국가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돌아보면, 기자단 활동을 하기 전의 나는, 통일을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이 우리 세대가 반드시 준비하고 더 알아야 할 과제라고 느낀다.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까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는 대한민국!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게 느껴진다.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지키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멀리멀리 전해본다.

## 내가 걸은 길, 마음에 담은 나라사랑 이야기

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립대전현충원에 사촌 형과 누나들을 따라 묘역 정화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이 놀고 싶어 따라가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비마다 새겨진 이름과 화병의 꽃과 태극기, 그리고 그곳에서 잠든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묘역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보훈둘레길 걷기 행사에도 참여 했습니다. 총 10.4km로 구성된 보훈둘레길은 현충원 정문 옆 출발지를 시작으로 외곽을 따라 조성된 7개의 코스로 이어졌고, 각 코스마다 인증지점과 벤치, 전망대가 잘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편안 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면서, 평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라와 순국선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빨강길은 호국철도기념관까지 1.4km였습니다. 출발 전 모기약을 바르고, 사진을 찍으며 부모님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고, 조금씩 땀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관 안에서는 다양한 기차 모형과 6.25 전쟁 당시 기차의 역할, 기관사들의 활약을 배울 수 있었고,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던 기차와 사람들을 떠올리며 숙연해졌습니다. 단순한 모형 하나하나에도 전쟁의 아픔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쓴 이들의 노력이 담겨 있어, 마음속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코스인 주황길의 인증지점은 조망쉼터였습니다. 대통령 묘역 주변을 올라야 했기에 약간 가파르고 길이 험했지만, 1.3km를 걸어 도착해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잠시 쉬었습니다. 내려오면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영부인의 묘역도 잠깐 둘러보았고, 역사 속 인물들이 어떤 삶과 헌신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바라본 묘역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떠올리니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세 번째 코스인 노랑길 충혼지는 연못과 정자가 있는 고즈넉한 장소였습니다. 가을이면 노랗고 빨간 단풍이 물들어 경치가 아름답지만, 제3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지나면서 안쓰러움과 숙연함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앉아 물을 바라보며 사색을 하다 보니, 마음속 깊이 감사와 존경이 우러나왔습니다.

자연과 묘역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힘들었던 다리도 잊혀졌습니다.

네 번째 코스인 초록길 보훈전망대는 2.2km로, 고지대에 위치하여 걸어가는 동안 다소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창한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과 시원한 바람 덕분에 걷는 내내 건강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물과 간식을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청솔모가 잣을 먹는 모습도 신기하게 구경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과 함께 걷는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단체 등산객분들께서 “멋지다!”며 엄지척을 해주어 기운이 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코스인 파랑길 1004전망대는 0.8km로 비교적 짧았지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과 독립유공자 묘역을 지나가는 계단 구간이 있어 체력 소모가 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아빠에게 안겨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파이팅! 을 외치며, 여섯 번째 코스인 쪽빛길 보훈정으로 향했습니다. 보훈정은 산 아래 위치한 정자로, 초록빛 잔디와 고즈넉한 분위기가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휴식 공간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잠시 앉아 쉬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앞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코스인 보라길 1.5km의 인증지점 현충지쉼터는 한반도 지도 모양을 본떠 만든 연못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충혼탑이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추모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와 그늘이 마련 되어 있어 쉬면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었고, 보라길 징검다리를 건너 출발했던 현충원 정문 앞에서 10.4km의 보훈둘레길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증지점인 현충탑 앞까지 다녀온후, 하늘나라 우체통에 이름 모를 분들에게 편지를 넣으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둘레길을 걸으며 메타세콰이어길과 야생화공원도 지나고, 현충원 안의 호국장비 전시관에 진열된 6.25 전후 사용된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군 장비를 보면서, 전쟁 당시 군인들이 어떤 비행기, 탱크, 장갑차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시대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 군인들의 용기와 노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걷기 챌린지를 마치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걸으며 느낀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내가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서해 수호의 날 플로깅 활동에도 참여했는데,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일이 단순히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를 꽃고 묘비를 닦는 손길 하나,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 하나에도 나라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또한 ‘묘역 태극기 계양 프로젝트’에도 참가했는데, 1묘역만 배정받아서 너무 적다 했는데, 묘역에서 낡은 태극기를 수거하고 새 태극기로 교체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낡은 태극기를 수거할 때, 땅에 묻힌 부분이 잘 빠지지 않아 힘들었고,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수거한 태극기를 비닐에 담아 들고 가야해서 곳곳에 나누어 두면서 수거했어요. 다 끝나고 나니 무겁고 힘들었지만, 수거한 태극기를 현충관으로 옮겨다 놓고 나서 마음속 깊이 “내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새 태극기로 단장될 묘역을 생각하니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제 4 회 보훈스쿨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부모님과 함께 들을수 있었어요.

보훈미래관 전시실을 둘러보며 독립유공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시실 견학과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현충원의 유래를 배우고, 묵념의 방에서 나라의 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육실에서는 현충탑과 현충문 팝업카드를 만들었는데, 처음엔 어려웠지만 완성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현충탑 현화를 못한 게 아쉬웠지만, 현충문 앞에서 대표학생으로 묵념 의전을 맡게 되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잠깐이었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고, 무엇보다 부모님과 함께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에 제5회 전국 나라사랑 백일장대회에도 참가했는데, 백일장에서는 “내가 만약 독립운동가라면”이라는 슬로건아래 ‘광복’이라는 주제로 시를 쓰는 거였는데, 시를 쓰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음을 표현했고, 보훈둘레길을 걸으며 느낀 감동과 다짐을 글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나라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자유를 감사히 여기고 지키려는 작은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광복 80주년인 2025년 저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이 모든 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묘비를 닦는 손길 하나, 쓰레기를 줍는 행동의 봉사활동이나 단순한 걸기를 넘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 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용기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담길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충원 봉사활동과 나라사랑 체험을 꾸준히 이어가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다시 느꼈고,  
앞으로 역사와 나라를 잊지 않고 공부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겠  
다고 다짐했습니다.

## 대전 현충원에서 만난 증조할아버지

원○○

안녕하세요. 저는 부용초등학교 1학년 1반 원민하 입니다. 저는 추석 때 대전 현충원을 다녀왔어요. 현충원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훌륭한 어른들이 계신다고 엄마가 얘기 해주셨어요. 바로 이곳에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신 증조할아버지께서 잠들어 계셔 매년 찾아오고 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6.25 전쟁 참전 용사라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뵈 적은 없지만, 현충원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 묘비 앞에 서서 “증조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려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체험관에 가서 재미있는 영상과 활동을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이었어요. 태극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태극기의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를 열심히 그려보고 다 그렸을 때는 진짜 태극기와 비슷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태극기 모서리에 있는 검은색 막대기 그림을 그렸어요. 가운데를 그릴 때 보다 어렵게 되어있지만 순서와 그림 모양을 보면서 천천히 그렸어요. 검은색 3줄, 4줄, 5줄, 6줄 검은색 막대기를 순서대로 그리면 태극기가 완성이 되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기를 틀리지 않고 직접 그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태극기를 다 그리고 나서는 바깥에 전시된 보훈 장비 전시장을 갔어요. 커다란 비행기도 보고, 튼튼해 보이는 자동차와 탱크도 보았어요.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전쟁 때 이런 멋진 장비들을 타고 우리나라를 지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현충원에 가서 증조할아버지께도 인사드리고, 태극기에 담긴 소중한 마음과 그리는 법도 배우고, 나라를 지킨 멋진 장비도 보았어요. 오늘 보고 배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증조할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저도 열심히 사랑하고 아끼는 멋진 어린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 병역명문가, 그 이름의 무게를 기쁨으로

김○○

'나라사랑 체험교육'. 그 여섯 글자가 가정통신문에 인쇄되어 교실에 도착한 날, 나는 나도 모르게 주먹을 살짝 쥐었다. 아이들은 "또 현충원이야?", "차라리 놀이 공원을 가지"라며 투덜댔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에게 '국립대전현충원'은 연례행사로 방문하는 소풍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그곳은, 나의 증조할아버지와 외증조할아버지가 동시에 잠들어 계신, 나의 가장 사적이고도 공적인 공간이다.

우리 친가는 '병역명문가'다. 거실 가장 좋은 자리에는 증조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세대까지,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답했던 가문의 역사가 금빛 증서로 걸려있다. 그 증서의 중심에 계신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는 이곳 장병 묘역에 잠들어 계신다. 그리고 나의 외할아버지 역시, 이곳 참전 용사 묘역에 잠들어 계신다.

한 아이의 뿌리가 친가와 외가, 양쪽 모두를 통해 이토록 깊숙이 현충원에 닿아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은 열다섯 살 나의 정체성이자, 동시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묵직한 비밀이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병역명문가'라는 칭호는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되어갔다. 친구들이 아이돌 포토 카드를 교환하고 새로 나온 티트 색깔에 열광할 때, 나는 마치 내 치수에 맞지 않는 낡고 무거운 예복을 억지로 입은 기분이었다. '유난 떠다'는 말을 들을까 봐, '너희 집은 좀 다르다'는 시선으로 구분될까 봐, 나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내 가족사를 먼저 꺼낸 적이 없다.

그런 내가, 반 아이들 전체와 함께 '체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니. 그것은 마치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단체 관람객 앞에 억지로 펼쳐 보여야 하는, 가혹한 무대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현충원 정문을 통과할 때, 아이들의 소란과 나의 침묵은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곳은 그냥 공원이나 묘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뿌리'. 그 단어가 유독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단체로 현충탑에 참배하고, 정해진 동선을 따라 걸었다. 우리는 천안함 46용사 묘역 앞에 멈춰 섰다. 해설사님은 묘비에 새겨진 젊은 얼굴들, 그들과 가족이 나누는 마지막 메시지, 그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숙연해졌다.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다. 나 역시 가슴 한편이 아릿했다.

하지만 그 아릿함 속에서, 나는 또다시 나 혼자만의 이질감을 느꼈다. '이분들의 희생은 이렇게 모두가 듣고 우는데, 왜 우리 할아버지의 희생은 나만 알아야 할까.'

내 할아버지의 묘비에는 방문객의 눈길을 끌 만한 젊은 사진도, 눈물샘을 자극하는 애절한 사연도 붙어있지 않다. 그저 '육군 병장 박재석', '경찰 이용훈'이라는 직함과 이름, 그리고 멈춰버린 날짜뿐이다. '병역명문가'라는 칭호가 공허하게 들렸다. 나의 영웅들은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외롭게 그 자리에 계셨다.

질투심. 숭고한 묘역 앞에서 가져서는 안 될 그 감정이, 사춘기 소녀의 속좁은 마음을 여지없이 활궤었다. 그 순간, 거실에 걸린 그 금빛 증서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이기적인 손녀일 뿐이었다.

체험교육의 마지막 순서는 '자유 참배 및 소감문 작성'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그늘에 흠어져 앉아 방금 들은 이야기로 소감문을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일어나 무리에서 빠져나왔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 발은 익숙하게 친할아버지의 묘역을 향하고 있었다. 장병 제3묘역. 수많은 비석이 도열해 있는 그곳. 나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만져본 적도 없는 얼굴, 들어본 적도 없는 목소리. 나는 그저 차가운 비석을 손끝으로 쓸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나는 해설사님이 들려준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전장으로 향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택이 '병역명문가'라는 이름이 되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체험교육 코스에는 없는 길,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곳.

엄마의 그리움이 배어 있는 외증조할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또 다른 영웅. 그 때였다. 친할아버지의 묘역에서 외할아버지의 묘역까지. 현충원 안을 가로지르는 그 긴 산책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두 개의 묘역을 동시에 가슴에 품고 있었다. 하나는 '명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공적인 무게의 공간. 다른 하나는 '외할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사적인 그리움의 공간.

나는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 애썼다. '병역명문가'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외할아버지에 대한 사랑마저 숨겨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두 분은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다. 한 분은 '나라'를, 한 분은 '국민'을 지켰다. 두 분의 헌신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가 밭 딛고 선 이 땅의 '뿌리'였다.

천안함 용사들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었던 '평범한 이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진짜 영웅'을 가족으로 둔 사람이 아닌가. 나는 왜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그늘 속에 숨기려만 했을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웠다. 나는 더 이상 '명문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시샘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가 고마웠다. 그 이야기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두 분의 할아버지를 그저 '무거운 숙제'로만 여겼을 테니까.

나는 소감문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 나의 또 다른 할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그 두 분을 동시에 가슴에 품게 된 나의 벅찬 '기쁨'에 대해.

'병역명문가'라는 이름의 무게는, 이제 나를 짓누르는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친가와 외가라는 두 개의 거대한 뿌리가 내게만 허락한,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오늘, 나는 그 묵직한 훈장을 비로소 나의 기쁨으로 가슴에 단다.

## 나라사랑의 길에서

강○○

바람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실어 나르고  
나는 그 길 위에서  
숨죽인 시간과 마주한다.  
검게 물든 돌담마다  
선조들의 숨결이 배어 있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묵직한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

발걸음마다 메아리치는  
희생과 헌신의 리듬 속에서  
나는 작은 나의 존재를 깨닫는다.  
그들의 눈빛, 묵묵히 세운 탑과 깃발,  
모든 것이 나에게 속삭인다.  
“오늘의 너, 내일의 너,  
이 땅을 지키는 한 조각이다.”

햇살 아래 흔들리는 국기처럼  
내 마음도 흔들리지만  
깊은 뿌리의 단단함을 본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작은 손길로 세상을 지키는  
묵묵한 힘임을 느낀다.

나는 걸으며 생각한다.  
땀과 먼지가 뒤섞인 체험의 시간 속에서  
단순히 역사책에서 읽은 사건들이  
살아 숨 쉬는 현장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 현장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깨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보여준다.

작은 깃발 하나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인다.  
“그대들의 희생이 오늘 나를 만들었네.”  
돌담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에는  
어제의 외침과 오늘의 다짐이 섞여  
한 편의 긴 서사시처럼 나를 감싼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다.  
묵묵히 흘러간 시간 속에서  
수많은 손길과 발걸음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

나는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작은 나의 발걸음과 마음이  
이 나라를 지키는 한 조각이 되고  
내 주변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세상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말없이 마음에 스며들어  
한 편의 노래처럼,  
부드럽지만 강하게 울려 퍼진다.

하루를 마치며 나는 다짐한다.  
오늘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느낀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리라.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 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임을 기억하리라.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말한다.  
“이 땅과 사람, 그리고 나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이야기.”  
내 마음 속 작은 등불이  
역사의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나라사랑 체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넘어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깨우고,  
나를 나라의 일부로 만들어 주는  
거대한 이야기였다.  
내 눈에 비친 흔적 없는 길과  
손에 잡히지 않는 감동 속에서  
나는 성장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음을 느낀다.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책 속에서 배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길 위에서,  
그 발걸음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나라의 숨결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내 안에서 작은 불꽃이 되어  
미래로 이어질 것을 나는 안다.

현충원에서는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6.25 전사들만이 안장된줄 알았는데 오늘 대전 국립현충원을 둘러보면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전직 대통령, 그리고 운동선수분들 처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묻혀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우리가 당연시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비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이 담겨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현충원의 분위기였다. 어둡고 엄숙할 것이라는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오히려 밝고 생기가 넘쳤다. 추석이 얼마나 안 남은 시점에 방문해서 그런지 다른 방문객들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성묘하러, 혹은 그냥 산책하러 나오신 주민분들과 같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듯 했다.

각 비석 앞에 놓여있는 화려한 조화들은 안장자를 향한 유족들의 깊은 애정이 엿보였을 뿐더러,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감동적이었다. 또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하얀 꽃 대신에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화사한 색깔의 꽃을 놓음으로서 현충원을 슬픔의 공간이 아닌 추모와 존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나는 안내버스에서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현충원 곳곳을 둘러보며 안장된 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안장자는 2006년 곡예비행 퍼포먼스 도중 추락하여 숨진 어느 한 비행사였다.

해설사님의 말씀으로는 2006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로 곡예비행을 선보이던 도중 기체에 문제가 생겼으나 충분히 기체를 버리고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사는 수 많은 관람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기체를 관람객들에게서 부터 멀리 유도하여 추락하였고, 최후의 순간 조차 조종간을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연을 듣고 한참동안 머릿속이 멍해졌다. 만약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용기와 희생정신은 단순한 영웅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책임감이라는 걸 느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분명히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유족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그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엄마, 아빠, 누군가의 형제자매, 혹은 아끼는 동료.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면서도 그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다.

안내버스를 타서 현충원을 둘러보던 와중, 내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장된 묘지들 중에서 어느 노부부가 함께 비석 앞에 앉아 소풍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오늘은 유독 해가 찜찜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노부부도 양산을 펼치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쓰지 않고 비석 옆에 걸터앉아서 햇볕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다. 멀리서 지나가면서 봤기에 자세한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리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또 다른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아직까지 유족분들이 살아계셔서 묘지를 살펴주시는 안장자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이 없거나 대가 끊긴 분들도 많았다. 그 분들의 노고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일반인들도 가끔씩은 와서 둘러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경험을 통해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언덕 위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지는 비석들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야말로 벅차오름과도 동시에 씩씩한 감정까지 느껴졌다. 지금 우리의 행복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정말 든든하면서도 감동스러웠다.

이를 통해서 나는 오늘 단순히 안장자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것이 아닌, 그 분들이 희생하며 지켜낸 평화와 안정을 우리가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어떻게 이어 나갈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을 단순한 “엄숙한 분위기의 추모의 공간”이 아닌 유족이 아닌 사람들도 편하게 들이나들 수 있는 곳이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나 역시 앞으로도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 그날, 하늘 아래 고개를 숙이다

이○○

2025년 10월 27일,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현재 나는 육군 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날은 부대에서 제공한 국립대전현충원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맑고 선선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자연스레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한 걸음 묘역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영면해 계신 땅이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들었고, 그분들의 희생 앞에 내 일상과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새삼 느껴졌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참배가 아니라, 현충원의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특별한 체험이었다. 해설사분의 설명을 따라 걸으며, 그동안 교과서나 뉴스에서만 접했던 이름들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중에서도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순간은 홍범도 장군의 묘역 앞에 섰을 때였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 속에서 늘 위대한 인물로 배워왔지만, 정작 그분이 대전에 잠들어 계신다는 사실은 이번 견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책에서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만 만났던 분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해설사분의 안내로 묘역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치 오래전의 역사가 눈앞으로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장군께 직접 인사를 드리며, 나라를 위해 싸운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묘비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도 이 나라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묘역을 이동하다 보니,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묘역이 나타났다. 평택 해군기지에 전시된 참수리호 357정을 보았을 때도 깊은 감회를 느꼈지만, 그 참수리호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장병들을 이렇게 직접 뵈게 되니 그 감정은 전혀 달랐다.

내가 어린 시절 뉴스 속에서 들었던 이름들, 그때는 단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그분들이 실제로 내 앞에 계셨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 바다에 몸을 맡긴 젊은 해군 장병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당시 느꼈던 막연한 슬픔이 이제는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인사를 드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이 남긴 희생의 의미가 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 옆에는 채수근 상병의 묘역이 있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의 이야기는 뉴스로만 접했지만, 실제로 그 앞에 서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그도 조국의 바다를 지키던 한 청년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자 친구였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그의 영면을 빌며 인사를 드렸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연도가 내 마음을 오랫동안 떠나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기며 다른 묘역을 살펴보니, 올해 있었던 해군 대잠초계기 P-3CK 추락 사고 희생자들의 묘역도 자리하고 있었다. 해설사분께서 “이분들은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셨습니다, 끝까지 임무를 다하시며 조국의 하늘과 바다를 지킨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누군가는 매일의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분들의 묘역 앞에서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나와 우리를 있게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졌다.

이번 현충원 해설 프로그램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우리 역사와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어느 교과서에서도, 어느 뉴스에서도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없었던 ‘현실 속의 애국’을 나는 이곳에서 배웠다. 흥범도 장군에서 시작해 연평해전의 영웅들, 그리고 최근의 해군 순직 장병들까지... 시대는 달랐지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모두 ‘조국’이었다.

묘역을 나서는 길, 붉게 물든 단풍잎이 한 장 천천히 떨어졌다. 그것이 마치 수많은 희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잎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걸었다. 발밑의 흙과 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태극기 깃발의 펄럭임이 묘하게 어우러지며 마음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산 교육의 현장이었고, 우리가 왜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나는 이날의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애국심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대전의 하늘 아래 잠들어 계신 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릴 때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 그날의 약속을 이어가는 마음으로

원○○

매년 봄과 가을, 나는 어김없이 대전현충원의 언덕을 오른다. 어느덧 그 길을 걸은 지 24년이 흘렀다. 현충탑 앞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고, 늘 한 자리에 묵묵히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생각한다. 나에게 현충원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이자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약속의 장소이다.

할아버지는 육군 상사로 6.25전쟁에 참전하셨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한 몸을 바쳐 싸우셨고, 그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 어린 시절, 가족들이 국화를 올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묘비에 새겨진 이름과 훈장을 바라보며 ‘나라를 지킨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곤 했다.

어렸을 적 할아버지는 나에게 단호하면서도 다정하신 분이였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지 알 수 없었던 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에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란걸 뒤늦게 깨달았다. 지금은 할아버지를 직접 뵈 순 없지만, 묘역 앞에 서면 언제나 엄숙한 침묵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 육군 부사관의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올해로 19년째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곤 했다. 그때 느낀 뿌듯함과 책임감은 지금까지도 내 군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주고 있다.

현충원을 찾을 때마다 마음속에 두 사람의 군인이 있다. 한 분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할아버지의 세대’ 다른 한 사람은 그 정신을 이어가는 ‘나의 세대’이다. 세월이 흘러 시대는 변했지만, 군인이 지켜야 할 가치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이다.

대전 현충원은 단순한 안장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이다. 수많은 묘역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이 잠들어 있고,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다. 나는 매번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묵념을 한다.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아들이었을 그분들의 헌신이 지금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올해 후배 부사관들과 견학으로 현충원을 찾았을 때, 나는 후배 부사관 들과 함께 참배를 했다. 그들에게 할아버지께서 여기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6.25전쟁 참전 용사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군인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 말에 같은 군인으로서 공감하는 마음을 느끼며 숙연해졌다. 나에게 그 순간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군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시간 이었다.

나라사랑은 교과서 속의 단어가 아니라, 실제의 삶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마음임을 깨달았다.

19년의 복무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현충원을 다녀올 때마다 다시 마음이 다져졌다. 군 생활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

으로 군 생활에 임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굳건히 다져본다.

이런 현충원은 큰 의미로 약속에 장소 이다. 현충원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이다. 그곳은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다. 단 한 번의 참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라 생각된다.

나라사랑 체험을 통해 나는 다시 한 번 생각했다. ‘희생은 기억될 때 완성 된다’라는 사실을. 누군가의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정신이 후대에 계속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나는 앞으로도 매년 그 언덕을 오를 것이다.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경례를 하며, 군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희생 위에 서 있는 한명의 군인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 역시 후배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남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아버지께, 그리고 이 나라에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경례다.

## 국민, 영웅

조○○

낮은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  
비석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청춘의 봄날이 저버린 이름부터  
황혼의 저녁노을에 맡긴 이름까지  
땅 아래 묻혀 나라를 받쳐준다

들풀의 흔들림에  
총성의 메아리가 울리고  
고혼들이 노래하네

봄날의 꽃잎은 업적을 찬양하고  
여름 장마비 물방울은  
묘비에 무릎 꿇고 울고  
가을 낙엽은 묘비를 덮어주네  
겨울 눈은 흰 제복 되어  
그들을 다시 감싸 안아주는구나

누구는 땅위에서, 누구는 바다에서, 누구는 하늘에서  
누군가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이곳 대전의 품에서  
영웅의 심장은 여전히 박동한다

아침 조회 시간 올리던 묵념의 시간  
그들의 깃발은 다시 한번 세워져 펄럭인다  
시간이 흘러도  
국화 한송이의 의미는 시들지 않아

나라를 지킨 빛나는 별들  
그들은 바로  
이 땅의  
국민, 영웅

현충문을 지나 탑을 향해 걸었다.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었고, 깃발들은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탑의 그림자는 계절의 각도에 맞춰 바닥에 곧게 서 있었다. 나는 장엄함보다 먼저 규칙을 보았다.

돌 바닥의 같은 간격, 깃줄의 같은 장력, 잔디의 같은 결. 규칙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규칙의 반복은 마음의 떨림을 가라앉힌다. 그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33년 동안 하늘의 공허를 경계했던 한 사람의 생활이 내 안에 깊게 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하늘을 지켰다. 밤과 낮, 맑음과 비바람, 경계의 시간은 늘 정확했다.

그 정확함이 없었다면 경계는 금세 흐트러졌을 것이다. 나는 부모 세대가 벌여놓은 정확함의 그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어쩌면 그 정확함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데려온 것인지도 모른다.

위패봉안실의 문은 예상보다 가벼웠다. 문턱을 넘자 공기가 반음 낮아졌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금 늦게 내쉬었다. 균등하게 배치된 조명은 대리석의 표면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반짝임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직함이었다.

이름의 획과 획 사이에서만 빛은 과장되지 않았고, 나를 속이지도 않았다. 가까이 다가서자 글자의 굵기가 명확해졌다. 획의 시작과 끝에서 잉크가 살짝 더 모여 있는 듯 보였고, 그 촘촘함이 이곳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손끝으로 가장자리 모서리를 스쳤다.

돌의 차가움이 피부를 통해 바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 온도는 눈물보다 오래 갔다. 눈물은 흘러내리고 가면 사라지지만, 돌의 온도는 천천히 뺏속으로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나는 돌 앞에서 조금 작아졌다.

오른쪽 벽면에서는 십이지신상이 정방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짐승의 얼굴을 한 인물상이 관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오래된 약속을 떠올리게 했다.

보호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는 약속. 선녀 승천도의 흐름이 그 옆으로 이어졌다. 하늘로 오르는 선의 곡선과, 이 방에 모셔진 이름들의 단단한 직선이 같은 장소에 공존했다.

보호의 기호가 방 안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도, 여기서 완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리게 했다. 이 방이 지켜낸 것은 이름이었다.

가장 중요한 몸은, 흠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보호의 약속이 절반만

이행되었을 때, 남은 절반의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그 질문이 차가운 돌 표면 아래서 내 시선을 붙들었다.

위패 위치를 안내하는 체계가 눈에 들어왔다. 실, 판, 면, 행과 열. 누군가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좌표를 부여하는 방식. 2실 22판 1면 10행 2열 같은 숫자들이 사람의 자리를 지켜 준다. 질서는 결국 귀환을 돕는다. 이 질서가 없다면, 남은 자들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의 이름 앞에 정확하게 서기 위해, 우리는 숫자와 표식을 배운다. 표식을 읽는 일은 남은 이들의 문해력이다.

나는 표식을 읽으면서 동시에 내 삶의 질서를 떠올렸다. 어쩌면 장례와 추모의 언어는 질서의 언어인지도 모른다. 제 시간에 문을 열고, 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제 방향으로 발을 옮기는 일. 슬픔을 질서 있게 다루는 법을 여기서 배운다.

아버지가 내 옆에 섰다. 경례 자세는 몸이 기억하는 동작이었고, 그 동작 안에 그의 33년이 잠겨 있었다. 하늘의 가장 높은 경계를 지켜 온 사람이, 오늘은 땅의 가장 낮은 결핍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역설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했다. 그의 침묵은 오래 서 있었다. 몸이 없는 이름 앞에 선 사람의 표정은 다 비슷하다. 입꼬리가 굳고,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간다. 말은 줄어든다.

침묵은 자리에서 키가 자란다. 나는 그 침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의 33년은, 어쩌면 유해가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한 긴 순찰이 아니었을까. 하늘을 지키는 일이 땅의 부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부재를 견디게 해 준 것은 것처럼 길고 규칙적인 순찰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입술을 열어 이름을 불렀다. 이름은 짧았고, 모음의 끝에서 혀끝이 살짝 말렸다. 소리는 금세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것 같았을 뿐이다. 소리는 어디에 선가 작은 떨림으로 남는다. 특히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내는 소리는.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압축된 두세음절을 정확한 억양으로 불러내는 일, 그 이름을 내 입술이 흘리지 않게 지탱하는 일. 나는 한 번 더 불렀다. 이름은 내 입에서 나와 방의 공기를 살짝 흔들었다.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밖으로 나오니 바람의 결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보훈동산 쪽으로 이어지는 길은 메타세쿼이아의 그늘이 깊었다. 나무들은 자신이 만들어 낸 바람을 스스로 견디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가지끼리 서로 기대며 흔들리다가, 다시 혼자 서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았다.

나는 그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아래의 자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열을 맞추어 통로로 향했다. 귀환을 밝히는 길이라는 안내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만으로도 얇은 불빛이 마음속에서 켜졌다. 귀환은 단지 돌아오는 일이 아니며, 환대는 단지 반기는 일이 아니다. 나는 그 사실을 오늘 배워야 했다.

통로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아서 좋았다. 좌우의 벽면은 차분한 질감으로 손을 붙잡아 주었고, 상부의 개방부는 얇은 하늘을 내려놓았다. 햇빛의 폭은 예상보다 좁았지만, 그 좁음이 오히려 집중을 만들어 냈다. 발소리가 낮게 깔려 앞으로 나아갔다.

통로의 중간쯤에서 나는 멈춰 섰다. 벽면의 작은 설명문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장이 있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끊긴 이름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미결로 남은 수많은 시간들. 수만 명의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길의 형태로 응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 숫자 앞에서 다시 작아졌다.

숫자는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수만이라는 단어가 내 발목을 붙잡아 세웠다.

귀환은 무엇인가. 떠났던 곳으로 몸을 되돌리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귀환에는 인정과 환대, 합류와 회복이 포함된다. 길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다. 문을 고치고, 창을 닦고, 의자를 방향에 맞게 돌려놓는 일. 환대는 장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태도의 문제였다. 나는 지난 시간 내 태도의 가구가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떠올렸다. 미뤄 둔 연락, 무심히 넘긴 말, 사과를 건네지 못했던 순간들. 나는 맞이하지 못한 것들을 떠올렸다.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보폭을 먼저 맞춰야 한다. 오늘 나는 내 보폭을 조금 줄였다. 상대가 반 박자 늦게 걸어오면, 나는 반 박자 느리게 걷는 법을 배웠다. 그 작은 조정이 길을 만들었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다.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다시 큰 공간으로 이동할 때 공기의 밀도는 분명히 달라진다. 나는 표지판을 따라 또 다른 장소로 향했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삼각 기둥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해 있는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삼각형의 모서리는 둥글지 않았다.

각이 선명했다. 각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한 기둥에 손을 얹었다. 햇빛이 기둥의 한 면에 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자 빛이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건너갔다. 이름들이 빛과 그림자를 번갈아 맞았다. 이곳에는 약 7천여 명의 이름이 모여 있다고 했다. 후손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분들의 이름. 무후라는 단어는 여전히 마음을 세게 건드렸다. 후손은 가장 사적인 완결이다. 그 완결을 포기한 이들이 이 길을 만들었다. 독립의 문을 향해 모이는 삼각들의 행렬은 공동의 방향을 상징했다. 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이름과 이름 사이의 간격을 손가락으로 재어 보듯 마음으로 재었다.

간격은 바람의 통로가 되었고, 통로를 지난 바람은 소리가 달라졌다. 낮고 길게 울려퍼졌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몇 개의 이름을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 이름들 이 서로를 불러 세우는 듯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었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다. 존재가 정돈되고, 마음이 방향을 갖는 느낌. 나는 오늘 그 일을 이곳에서 해야 했다.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일. 무후의 이름들 앞에서 나는 증조부를 떠올렸다. 그는 후손이 없었던 분들과는 다르게 우리 가족이라는 뚜렷한 가치를 남겼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없다. 흙이 없다.

이름은 도착했고, 몸은 도착하지 못했다. 두 부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고독이었지만, 결국 같은 질감의 바람을 만들었다. 후손이 없어 이름만 남은 이들의 고독과, 몸이 없어 이름만 남은 한 사람의 고독. 나는 두 고독의 교차점 위에 서 있었다.

그 교차점에서 세대적 후손이라는 말의 의미가 선명해졌다. 혈연의 후손만이 후손이 아니다. 기억하고 부르고 지키는 사람, 방향을 유지하고 길을 밝히는 사람이 후손이다.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전체를 걸어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다시 현충탑 쪽으로 걸어갔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정한 박자로 지나갔다. 구령은 들리지 않았고, 발소리만 균등하게 연주되었다. 관리 직원이 쓸고 간 바닥에는 얇은 수분 자국이 남아 있었다. 화병의 물은 방금 갈아 넣은 듯 맑았고, 안내판의 모서리는 손때로 반들거렸다. 이런 자잘한 성실이 큰 의미를 지탱한다. 이름 없는 손들이 큰 이야기를 지켜 준다. 큰 이야기는 언제나 작은 끈들이 나뉘들어 올린다. 나는 그 끈들을 붙들고 있는 손들을 생각했다. 손의 굳은살, 손등의 햇빛 자국, 손목의 얇은 붕대. 이런 디테일이 공간을 공간답게 유지한다. 장소를 지키는 일은 결국 생활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다시 위패봉안실로 향했다. 한 번 더 이름을 부르고 싶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까와 같은 자리, 같은 높이에서 나는 이름을 불렀다. 소리는 벽과 천장을 스치며 얇게 흔들렸다가 사라졌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분명 남았다.

남아야 한다. 남지 않는다면 내 오늘의 방문은 의미를 잃는다. 나는 손끝을 모서리에 한 번 더 대고, 오늘의 온도를 마음속에 저장했다. 온도를 저장하는 일은 자세를 저장하는 일과 비슷하다. 한 번 몸이 기억한 자세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지, 고개를 어느 각도로 숙일지, 발을 어느 쪽으로 먼저 옮길지. 이런 것들이 슬픔을 다루는 실재의 기술이다.

밖으로 나오며 보훈둘레길 안내 지도를 훑었다. 메타세쿼이아길, 호국철도 기념관, 쉼터의 위치. 풍경은 아까와 같았지만 내 시선이 달라졌다. 사람은 보는 법을 배운 뒤에야 풍경을 보기 시작한다. 나는 오늘 보는 법을 조금 더 배웠다. 몸이 없는 이름을 어떻게 볼 것인지, 보지 못한 몸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기억을 어떻게 생활의 규칙으로 옮길 것인지. 장례의 언어에서 생활의 언어로 건너가는 법을.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변한다. 구름의 밀도, 빛의 각도, 바람의 결.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은 삶을 지키는 감각과 맞닿아 있다. 나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작은 노트에 문장을 적었다. 나라 사랑은 장례의 문장이 아니라 생활의 문장. 큰 제의는 해마다 돌아오지만, 생활의 문장은 매일 쓰인다.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는 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발, 이름표의 글자를 정확히 읽고 먼저 인사하는 시선. 이 작은 문장들이 귀환을 밝히는 길을 만든다. 환대는 문구가 아니라 몸의 습관이다. 나의 습관을 바꾸면 내 주변의 길이 달라진다. 위패봉안실에서의 촉각, 통로의 얇은 빛, 삼각 기둥의 각과 바람의 소리, 이름 없는 손들의 성실. 한 문단씩 천천히 다듬었다. 오탈자를 지우고, 과장된 비유를 덜어내고, 숫자와 시설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했다. 정확함은 애도의 최소한이다. 정확하지 않은 애도는 관념이 되고, 관념은 오래가지 못한다.

잠시 쉬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하늘을 닮은 사람이다. 하늘은 넓지만, 하늘은 또한 규칙적이다. 떠오르고, 기울고, 사라지고, 다시 떠오르는 정확한 순서. 그 순서를 믿는 일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나는 오늘 땅의 일을 조금 더 믿기로 했다. 땅의 일은 대체로 느리고, 때로는 미결로 남는다. 미결을 견디

는 일 역시 규칙이다. 돌아오지 못한 몸들을 생각하며, 나는 나의 생활을 다시 세웠다. 한 사람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일, 한 사람의 귀환을 위한 환대의 준비, 후손 없는 이름들을 대신해 방향을 세우는 일. 이것들은 내가 오늘부터 매일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결심을 문장으로 적었다. 몸이 없는 이름은, 흙 속이 아니라 산 자들의 성실속에 묻혀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나의 나라 사랑은 장례의 문장이 아니라 생활의 문장이다. 계단의 난간을 닦는 손, 이웃의 초인종을 눌렀다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손, 재활용 배출 시간을 지키는 손,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름표의 글자를 정확히 읽는 눈. 내가 가진 하루의 기술을 이렇게 쓰겠다. 작은 기술들이 모여길을 밝힌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빛들이 합쳐 하나의 문을 연다. 각이 뚜렷한 삼각 기둥들이 한 방향으로 줄지어 문을 만든 것처럼. 나는 그 문을 향해 걷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정확한 보폭으로. 나는 이제 안다. 미결된 상실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규칙이다. 그 규칙을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지키는 일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계다.

몸이 없는 이름 앞에서 나는 매일의 문장을 새로 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들고, 두 개의 길을 반복해 지난다. 귀환을 밝히는 길,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두 길은 결국 하나의 길이 된다. 돌아오지 못한 것들을 끝내 맞이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마음들을 한 방향으로 세우기 위해. 그 길 위에서 나는 내 이름을 바르게 적는다.

바르게 적힌 이름은 언젠가 바르게 불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결에 가까워질 것이다.